

<p>생활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하기(서로 뜨겁게 환영하기, 새가족 환영하며 축복하기) / 구역장 ● 구역 모임을 여는 기도 / 구역장 ● 축하하기(생일, 졸업, 출산, 퇴원, 수료 등) / 축하지기 ●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구역장
<p>은혜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시다(찬송가 장) / 찬양지기 <p style="text-align: center;">불평하는 백성들 (민수기 14:1-10)</p> <p>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보고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커서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원망하며 울고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를 경청하지 않은 것이 너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감사’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대부분은 시편에 등장합니다. 특히 시편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문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공동체 감사제의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제의에서만 감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일상에서는 감사가 없으며, 제의와 제사에서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교회에서만 감사를 외치는 것은 아닙니까. 일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찬 것은 아닙니까.</p> <p>또한 온 백성이 가졌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투명함이며, 자신들인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와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어린양의 죽음으로 구원 받았으며,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년도 되지 않아 그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p> <p>그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감사의 수준이 자신들의 구원과 음식의 문제에 제한되었으며,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그들을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애굽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질서와 노예의 삶은 오직 생명과 음식에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 저장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감사의 영역의 확장은 없습니다. 늘 구원과 소유에 감사가 제한될 것입니다.</p> <p>☞ 은혜의 나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2.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생각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구역장
<p>축복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지기 ●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한사람씩). / 기도지기 ● 품고 있는 잃은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지기 ● 공동기도제목(교회, 구역, 선교, 2018년 목회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지기 ● 구역장이 모든 구역식구를 위해 축복기도 합니다. / 구역장 ● 주기도문 / 다같이